

총선 호남 제1당 과제로…공천 조율 등 난제 수두룩

51일만의 초스피드 창당…국민의당 과제와 전망

국민의당이 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제3당의 첫 기치를 올렸다. 국민의당 창당은 지난해 12월13일 안철수 공동대표가 탈당한 지 51일 만에 ‘초스피드’로 이뤄졌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체제 타파와 정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만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우선 국민의당은 71일 후에 당의 운명과 차기 대권주자 안 대표의 명운을 가를 4·13 총선을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 선거에서 제1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

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제1야당으로 탄생하면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것이고, 현재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수준의 성적만 내도 체면치레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호남에서 제1당이 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야권의 텃밭에서 1당이 된다는 것은 안 대표가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할 때 가장 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당의 주요 세력 간 역할의 조율과 협력이

3두체제 역할분담·협력 중요

새정치 이미지 회복도 급선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기성 정치인과 반문(반문재인) 세력 연합군의 형태로 첫발을 내디뎠다.

또 국민의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안철수·전정배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두 사람과 함께 김한길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지만 이들 세 사람의 역할 분담과 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세 사람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의 생

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새정치체를 모토로 하는 국민의당이 참신한 인재를 얼마나 총선에 내세울지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반대로 현역의원 물갈이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세 불리기에 주력한 나머지 현역 의원을 다수 합류시켰지만 공천 과정에서는 그동안 퇴색한 새정치 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참신한 인물 공천을 시도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호남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공천 과정이 갈등의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은 모든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공천룰의 큰 틀을 잡

았지만 시행세칙을 마련할 때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외부인사 영입도 남아야 할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신한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국민의당은 창당에 치중하면서 이렇다 할 ‘대어’를 낚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총선 후보 공천국면이 본격화되면 인재들이 물려올 것이라고 장담해 왔던 만큼 이제부터는 실적을 보여야 한다.

중도개혁 세력으로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명확히 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있어서 기존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는 것도 남아야 할 과제다. 그러나 호남지역을 최대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박근혜정부에 무력하게 대응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당 이미지를 벗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호남지역 현역 의원이 당의 주축이 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 자민련’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남 공략에 나서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야 전국정당으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안 대표가 대선후보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현역의원 20% 컷오프, 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더민주, 전주서 더불어민주당…조웅천 前 청와대비서관 영입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전주를 방문, 호남지역 민심 탐방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역의원 20% 컷오프는 (이미 만들어 놓은)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천심사위원회가 그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있는 룰 가운데에서도 기존에 미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탈당 또는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갈이 대상자는) 18%일지, 16%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해 ‘물갈이’ 폭이 다소 줄어 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야권 통합과 관련, 김 위원장은 “당을 분열시키고 나간 분들인데 통합이 이뤄질 수 있겠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개혁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노동개혁법이 여야의 합의를 거쳐 될 수 있으면 국

회를 통과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개혁법안이 개혁법이나 악법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웅천 전 검사도 이날 더민주에 입당했다. 더민주의 20호 외부인사 영입이자 문재인 전 대표의 마지막 영입 인사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인물이 반대 진영에 합류하게 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의한 권력과 잘못된 정치는 우리 모두를 절망하게 만든다”면서 “그러나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도 정치일 수밖에 없다”며 더민주 합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조웅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더민주 합류에 대해 “최악의 인재영입 케이스”라고 혹평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對野 포문 안철수서 지지율 오르는 더민주로

새누리, 김종인에 집중 포화

국보위 참여·친노패권 등

말 바꾸기 사례 발표 맹폭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공격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애초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안 의원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았으나 이후 지지율이 빠지자 더민주로 공격 대상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야권의 양대 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야권 지지세를 양분하는’ 구도를 원하는 새누리당의 총선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야권의 지지세가 한 당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지율이 오르는 야당을 공격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 다른 당의 상승세가 나타나면 그 당을 공격하는 식의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날도 새누리당은 조웅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영입한 데 대해 “더민주의 조급함과 초조함의 징표”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날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에게 맹폭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상황에 따라 바뀐 사례가 종종 있다며 그 사례를 자료화해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말 바꾸기 사례는 크게 ▲노동개혁 ▲친노패권 청산 ▲1948년 건국론 ▲국보위 참여 등 4가지로 분류됐다.

노동개혁과 관련, 김 위원장은 2012년 발간한 저서에서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이 정쟁이 되자 “독일과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 (새누리당) 이해를 잘못된 모양”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선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친노 패권 청산을 강조했지만, 친노·친문 인사가 다수 포진한 선대위가 출범한 뒤에는 “나는 누가 친노이고 친노가 아닌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1948년 건국론에 대해서는 2002년 언론사 기고에서 “앞으로 한 달 뒤면 대한민국은 건국 54주년”이라고 표현하고 2007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지칭했다. 그러나 최근 ‘국부’ 논쟁이 일자 “(과거 건국 표현은) 정부 수립과 건국이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쓴 것”이라고 물러섰다고 새누리당은 적었다.

1980년 국가보안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국보위뿐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해 참여한 일에 스스로 후회한 적 없다”고 했다가 27일에는 “광주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한 점을 공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브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

광주 전시장 :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 080-263-7743(전북 전주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S 300h(배기량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 16.4km/ℓ(도시연비 : 16.1km/ℓ, 고속도로연비 : 16.7km/ℓ), 복합CO₂ 배출량 : 103g/km, 등급 :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